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유업계 대응방안



강 신 민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1. 머리말

'98년은 우리 정유업계에 있어서는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변화와 격동,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산업 내부적으로는 국내 석유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 자유화의 완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격결정 관행의 정착,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실시, '99년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체질 개선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외부적인 여건으로서서는 우리 경제의 복합불황과 IMF자금지원체제 하에서의 긴축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고환율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개방등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여건의 변화와 경영환경의 악화속에서 우리 정유업계에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IMF 한파등 대내외 여건변화가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

'98년에 정유산업이 직면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석유수요의 둔화와 수출확대의 한계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및 IMF의 권고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가 대폭적인 석유류 특소세 및 교통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석유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9월에 석유 수요전망위원회가 예상한 전망치를 상당폭 하회한 3%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의 경제 불황에 따른 수요침체로 수출전망 역시 밝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시장은 석유가격이 자유화된 상태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공급과잉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물량 해소차원의 덤핑판매등 출혈경쟁에 따른 손익악화가 우려되며,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실시로 인한 석

유유통체계의 개편과 함께 IMF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없는 한계 정유사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외개방을 앞둔 석유산업의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 및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투자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투자규모의 대폭 축소 또는 연기가 잇따를 것이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어느 기업이라도 M&A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석유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원유가에 버금가는 최대 핵심변수로 부상한 환율요인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3. 정유업계 대응방안

(1) 국내수요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

'97년말 현재 국내 상업정제능력은 2,438만 B/D 수준으로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하더라도 유종별 수급 불균형을 감안할 때 다소의 공급과잉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성숙기에 들어선 국내 석유수요는 경제불황과 IMF한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고유가정책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내수요 침체에 따른 공급과잉의 일차적 해소책으로 정유사들은 수출선의 적극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일변도 수출에서 탈피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석유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내석유제품간·계절간 수급불균형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 정제수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일부 비효율적 Unit의 Shut-down 등 생산체계의 합리화와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가동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유사들은 변동비 수준의 가격에서 잉여물량을 해소해야 하

고, 이는 정유사들의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국내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가동을 하락과 동시에 수익성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석유 산업구조의 변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2) 신규투자 억제 및 재무구조 개선

IMF의 자금지원으로 저성장과 통화긴축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난이 예상되는데다가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당분간 차입에 의존한 신규투자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해외 정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해외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7조원에 달하는 유통자금을 회수하여 현재 400%대에 이르는 정유업계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내부자산 운용의 합리화, 운영비용의 절감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자금조달난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계절간의 가격차이에 적용하기 위해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한편, 부진한 사업부문에서는 과감히 퇴출하는 등의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3) 경제적인 원유도입 및 상류부문 진출모색

국내 정유업계의 '96년도 총 제조비용중 원재료비가 87%에 달할 정도로 원유관련 비용은 기업경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제원유가격은 우리 기업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원유도입 비용의 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비용 증가가 국제원유가 보다는 환율요인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볼 때 환율동향에 따른 원유수입대전 결제기간의 신축적

운용과 특히 공급자 신용(Shipper's Usance) 기간의 제한이 해제된 점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자 신용기간을 늘리고 은행 유선스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해외선물시장을 통한 교차 헤징과 '98년도에 개설예정인 외환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원유도입에 따른 환차손 및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우리은행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여 해외 은행을 통한 유선스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공급자측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급자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금융위기시대를 맞아 은행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도 단기적인 자금압박 요인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화로 요약되는 앞으로의 석유산업은 하류부문에 집중된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석유개발을 통한 상류부문 진출을 통한 수직적인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전략적 진출지역의 선정, 산유국 및 국내기업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합작개발, 탐사사업과 기계발 유전매입 간의 균형등을 통해 개발사업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4)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석유산업은 '99년에 대외개방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의 메이저급의 신규진입이 가능해 진데다가 IMF 금융지원에 따른 국내시장의 완전개방 및 금융개혁등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개별기업간의 M&A는 물론 유사업종간의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일부분이 무분별한 재벌의 차입경영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IMF의 권고를 수용한 상태에서 향후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요 침체를 맞은 국내정유업계로서는 국제석유회사와의 합작이나 선도기업-후

발기업, 후발기업-후발기업간 제휴, 공동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 3단계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계 대리점은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신규 진입자의 유통망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며 비경제적 주유소의 퇴출 및 흡수과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유사의 판매기능을 대형화된 직영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독립된 판매회사로 육성하고 주유소의 수직계열화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작게는 석유산업의 내부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크게는 국가적인 금융위기 및 IMF 한파가 정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정유업계는 과거의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에서 탈피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내실화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단기부채의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원가나 물류비용 절감등 혁신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설비확장등 외향적 시장확대 전략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위주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으로 전환하고 IMF의 요구로 진행될 구조조정을 기회로 부진한 사업부문에서는 과감히 퇴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췌록 우리에게 주어진 금융위기와 IMF지원체제하에서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99년에 예정된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배양하고 정유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